

회계교육에 있어서 학생특성과 학업성적과의 관련성 분석*

전춘옥**

〈요 약〉

본 연구는 회계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따라 가장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국내·외에서 행해진 기존연구의 결과는 연구자의 연구설계와 표본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회계교육에서 학생특성과 학업성적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이미 이뤄진 국내·외의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회계교육에 있어 학생특성이 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취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공여부, 수강학기수(재수강여부), 성별구분, 사회경험 유·무, 출신지역, 회계평가(학문적 존엄성과 사회진출기회), 학과목에의 적응도, 강의만족도 및 가정경제상황 등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학업성적(수시, 중간, 기말 및 총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 의한 가설검정결과 종속변수중 총점모델과 기말시험모델에서 명목변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특히,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학생특성은 회계학과목에 대한 적응도이며 이는 수시시험 모델(5% 유의수준)을 제외하면 중간시험, 기말시험 및 총점 모델 모두에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공여부, 재수강여부, 강의만족도 및 가정경제상황은 4가지 모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유의한 변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성별차이와 사회경험유무 및 출신지역의 차이 및 회계평가는 학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학업성과와 학생특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함과 아울러 학생특성별 학업성과와의 차이유무를 확인함으로써 회계교육에 의미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증자료의 축적과 논리의 일반화를 위하여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회계교육, 학생특성, 학업성과

* 이 논문은 2004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cojeon@catholic.ac.kr, 02-2164-4291

I. 들어가며

공자의 교육목표는 실천적인 것이었다. 이에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법 또한 전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대상(피교육자)에 따라 다른 방식을 취하였다. 그 예의 일단이 그의 사상의 중심이 되는 “仁”에 대하여 묻는 상대(제자)에 따라 다양한 답을 주셨다.¹⁾ 실천적 학문인 회계교육 현장에 공자가 행한 교육대상자에 따라 달리 교육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회계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미래의 회계교육에 대한 전망 또한 낙관적이지 못하다(Albrecht and Sack, 2000 : 전중열 · 오준환, 2001). 회계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학습능력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회 진출시 보수도 예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부제 실시와 복수전공제의 도입 및 대학에서의 회계교육내용이 실무적 응용에 유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회계교육의 위기”²⁾는 교육제도에서 비롯된 측면도 없지 않지만 대학에서 회계교육에 대한 질적 개선에 관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제까지의 교육이 강의자 중심과 회계정보 공급자 중심으로 행해지고 수강자 입장과 회계정보 이용자 입장이 경시되었기 때문이다(이대선 외, 1996).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두가지 주된 활동을 하는데 교육의 의무는 살아있는 지식

1) “仁”에 대하여 공자는 중궁에게는 “일단 밖에 나가 사람을 대할 때면 위아래를 가리지 말고 모두 큰 손님을 대하듯 하며 백성을 다스리기를 큰 제사 받들 듯 조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시고(논어, 안연2), 사마우에게는 “어진 사람은 말이 무겁다” “행함이 어렵거늘 어찌 말함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답했다.(논어, 안연 3) 번지에게는 “일상 생활을 공손한 마음으로 일에 임할 때는 조심스럽게 다루며 사람을 대할 때 성의로 대하는 것”이라 하였다(논어, 자로 19), 또한 자장에게는 “다섯 가지의 실천”이 곧 仁이라고 하시면서 “공손하고 너그로우며 믿음성 있고 근면하며 은혜를 베푸는 것”(논어, 양화 6)이라고 그 대상에 따라 각각 다른 답을 하셨다.

2) A. L. Gabbin은 “The Crisis in Accounting Education”에서 학생수의 하락과 회계전공자의 자격이 저하된 점 및 경영관련 졸업생 가운데 회계전공자의 초임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점을 들고 있고(www.aicpa.org/pubs/jofa/apr2002/gabbin.htm) Albrecht & Sack는 회계학위를 가진 실무자나 회계교육자 양쪽이 모두 만약 그들이 다시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면 또다시 회계학을 전공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 이유는 기업세계는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회계교육은 그렇지 못하고 또 회계교육은 너무 좁고 회고적(backward-looking)이며 보상받는 편익에 비하여 비용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적 및 경쟁적 변화로 인하여 회계경력직의 이점이 사라졌다는 것이다.(Accounting Education: Charting the Course through a Perilous Future, August 2000, pp. 33-35)

(knowledge alive)을 지켜나가는 것이며 교육은 젊은이들이 책임있는 생활과 인생의 커다란 부름에 답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Pusey, 1964)이라면 회계교육은 마땅히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즉 공자께서 실천하신 철저한 교육대상자의 눈높이에 초점을 맞춘 살아있는 실천적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회계학 또한 회계교육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위한 제언, 그리고 회계학 교과목 수강학생들의 질적 수준의 저하와 수강기피현상의 밑바탕에는 수강 학생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교육에서 비롯된 점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학업성적의 저하를 불러오고 회계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미국을 비롯한 회계선진국에서는 회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회계교육 개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AECC, 1998 : 전춘옥 외, 2001) 학생특성과 학업성과와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Mitchell, F, 1988, Dwyer P.1994, Keef, S. P. 1988, Byrne, M., 2002, 김혁외, 1993, 전중열 외, 2001, 박성규, 1999).

그러나 학생특성과 학업성적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연구설계와 표본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의 연구실적이 매우 적어 그간 이뤄진 몇 편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일반적인 논리를 전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또 하나의 시도로써 회계교육에서 학생특성과 학업성적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이미 이뤄진 국내외의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회계교육에 있어 학생특성이 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연구보다 학생특성변수를 확대시키고 중간과 기말고사 점수 이외의 수시시험의 성적에 대하여도 분석을 행하고 이들 모델간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4년 1학기에 회계학원론³⁾을 수강하는 학생 117명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설문지에 대한 응답결과를 실증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수강하는 학생 특성별 차이에 대한 국내외의 문헌적 연구결과를 검토한 후 이들 연구에서 채용되고 있는 학생특성을 가지고 학업성적⁴⁾과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학기말 성적평가를 하는데 기초적 자료가 되는 수

3) 경영학부의 계열기초과목으로 경영학부 1학년 학생은 필수적으로 수강하며 경영학 전공과 회계학 전공의 2-4학년 학생은 임의적으로 재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경영학부 이외의 다른 학부학생은 학년에 관계없이 복수전공 또는 선택과목으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 있다.

4) 학업성적의 산정기준은 2회의 수시시험 20%, 중간고사 20%, 기말고사 40%, 출결상황 10% 및 과제물 제출 10%의 배점기준을 적용하였다.

시시험과 중간시험 그리고 기말시험 및 이들 점수의 합계로써의 총점에 대한 각각에 대한 회귀분석모델을 설정하고 가설검증을 행하였다. 그리고 이들 검증결과와 국내외의 주요 연구결과와의 異同을 검토한 후 연구결과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이용된 학생특성은 전공여부, 재수강여부, 남녀 성별차이, 사회경험유무 및 출신지역 등이며 이와 함께 학과목에 대한 적응도나 강의만족도 등 수강후 자신의 강의 평가내용과 가정 경제 상황 등을 이용하였다.

Ⅱ. 선행연구의 검토

회계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특성에 따라 학업성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행해졌다. 만약 학생의 어떤 특성이 명확하게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대학 진학시 자신이 선택할 대학과 전공에 있어 보다 적응성이 높은 곳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크게 본다면 대학과 전공선택의 잘못으로 인한 학생의 부정적응에서 오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회계교육이라는 좁은 의미로 본다면 회계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수업전략을 수립하거나 학생들의 학업자세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성이 같은 학생들로 분반하거나 학생특성에 따른 사례나 강의내용을 제공하여 학업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에서는 학생 특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회계교육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영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즉, 남녀 성별 차이에 따른 학업성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 전공여부에 따른 학업성도차이의 연구, 학생이 처한 환경여건과 학업성도와와의 상관관계연구, 수강이전의 학습경험이나 실무적 경험의 유무에 의한 학업성도의 차이연구 및 인종차이에 의한 학업성도의 차이 유무 등이 그것이다.

1. 성별차이

먼저 남·녀 성별차이와 학업성도와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남·녀 학생사이에서 성별차이가 학업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했지만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 Lipe(1989)와 Williams(1990)

는 스코틀랜드 남학생들이 수학, 경제, 화학, 생물 및 회계와 재무에서 여학생보다 좋은 성적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수편의 연구중 두 연구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Doran 등(1991)은 회계원론과정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회계원론 이후의 후속적인 회계교과과정에서는 지속되지 않았다고 했다. Koh & Koh(1999)도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한 학업성과를 올렸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Mutchler 등(1987)의 연구와 Bayer 등(1989)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우수한 점수를 얻었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Tyson(1989)은 회계원리 과정에서 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적이 좋은가를 연구한 결과 근로욕구를 가지고 측정한 성별 성취동기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Baird 등(1998)도 여성 회계전공자가 같은 반에서 남성 회계전공자보다 점수가 평균적으로 우수함을 발견했으며 Gammie 등(2003)도 3년간 회계원론과 회계감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학업성적이 우수했음을 밝혔으나 졸업년도에서는 어느 과목에서도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Keef and Roush(1997)는 뉴질랜드 대학에서 관리회계 성적과 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학업능력 변수를 통제할 경우 성이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과 관련한 다른 많은 연구에서 성에 따른 회계학전공 학생의 학업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한다(Canlar and Bristol 1988, Buckless et al. 1991, Carpenter et al. 1993, Gist et al., 1996, Jackling and Anderson 1998). 또한 회계전공의 남·녀 사이에 개성측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Phillsbury et al. 1989). 한편 영국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형태(learning style)의 선택에 있어서 성별차이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Marriott 2002). 아일랜드 회계전공 학생들에 대한 관리회계 학습방법의 접근에 있어 심층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법(deep and strategic approach)과 수단접근법(instrumental approach)의 2방법이 남·녀 두 집단에서 학업성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남학생은 학업성과와 학습접근방법 사이에 관련성이 거의 없었지만 여성에서는 그 관계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Byrne et al. 2002). 성별차이가 학업성적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연구결과를 보아도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 즉 김혁 등(1993)은 남학생과 여학생간 회계원리 성적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데 반하여 박성규(1999)는 10%의 유의수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수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성이 2학년 교과목인 중급회계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두 성별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2. 전공차이

회계학 관련과목 수강시 전공에 차이가 있다면 당연히 전공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가 상식이다. 이러한 연구도 자주 행해지고 있다.

Gist 등(1996)은 회계원리 과정에서 회계학 전공자 경제학 전공자들이 비경영계열 전공자나 전공 미결정자보다 학업성적이 높았음을 확인하였고 Carpenter 등(1993)도 회계원론 교과목에서 전공자와 비전공자와의 학업성과에 대한 기대가 다르며 특히 남학생의 경우 전공자는 유의하게 비전공 학생보다 학업성적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Brewer 등(2001)은 경영학 전공과 비경영학 전공의 학생 사이에 경영학원리 과정에서 학업성적에 차이가 나고 지식체계(common body of knowledge)에서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Giacomino & Akers(1998)의 연구에서도 경영학 전공과 비경영학 전공자 사이에 행해진 가치와 가치행태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경영학 전공자와 회계학 전공자는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결과가 회계전공 학생에게도 특성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Reidner(1999)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도 경영학과 비경영학 전공자 사이에 환경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Clickman and Henning(2000)의 연구에서 학부의 회계전공 학생과 비회계의 경영전공 학생 사이에 사회화 과정(socialization process)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회계전공자들은 이익관리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경향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강해지고 경영학 전공자는 경영자의 목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특성을 나타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Snodgrass and Behling(1996)의 연구에서는 같은 반의 경영전공과 비경영 전공학생간에 도적적 추론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회계교과목 수강생들의 전공차이가 학업성적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만약 있다면 이러한 연구결과는 분반을 시키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기존 연구를 종합해 본다면 전공과 비전공 학생 사이에는 학업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환경여건

여기서 말하는 환경여건은 경제적 상황이나 개인의 감정적 인지적 특성을 말한다. Gracia 등(2002)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학생들의 학업실패는 재정적 및 감정적 문제로 보고 있다. 그는 학부학생이 경험적 전망으로부터 학업성적의 복잡성과 객관성을 인식하면

서 발전된다고 보고 과목선택에 대한 인식, 영향력, 강사의 기대차이, 학습을 위한 자기통제와 개인적 책임수준 및 학문적 성과의 이해와 참여형태를 들고 있다. Mladenovic(2000)은 회계원론 수강학생들이 회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다는 점과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좋은 방법으로 전통적 강의중심보다는 협동학습과 케이스 중심의 비전통적 강의를 유효함을 밝혔다. 회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가 학업성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Jones 등(2001)은 보강(supplemental instruction)은 강제적이건 자발적 참여이건 학업성가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비록 강제적인 경우와 자발적 수업참여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만 학습자의 참여와 인식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Tyson(1989)은 근로욕구로 측정한 성별 성취동기가 회계원리 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 또한 이러한 사고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Oswick(1998)에 의하면 회계원론을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영국의 학부학생에 대한 심리형태로 구분한 분석에 의하면 학생들의 개성(personality traits)과 회계성적 사이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연구방법과 표본의 내용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4. 사전적 학습경험과 사회경험

먼저 어떠한 전공에서건 사전적 학습경험이 있다면 그러한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학업성적이 좋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회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로는 고등학교에서 회계원론을 수강한 경험을 가진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과의 성적 차이에 대한 연구와 회계원론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전적으로 학습한 과목이 무엇인지 및 SAT나 우리나라 수능성적과 회계원론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보는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미국회계학회(1989)는 회계 전문직에 있어서 성공을 하기 위한 업무능력(capabilities)의 원천으로 재능(talents), 입문전 교육(pre-entry education) 및 지속적인 교육과 개발을 들었다. 업무능력을 학업성가로 대체하더라도 논리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Smith(1968)와 Baldwin 등(1978) 및 Schroder(1986)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에서의 회계 과목 또는 부기의 수강여부가 회계원리의 성적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편 Canlar(1986)는 학부에서의 회계과목 수강여부가 MBA과정의 재무회계 성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김혁 등(1993)의 연구에서도 고등학교에서 상업과

목을 이수한 학생의 회계원리과목의 중간고사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급편성에서의 재수강학생과 본수강 학생간의 학업성과에 대한 차이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회계학 교과목의 수강전 사회경험과 학업성과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Koh & Koh(1999)는 3년 학위과정 회계교육 프로그램에서 성공적으로 졸업한 학생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사전 직장경험이 있는 학생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학업성과를 나타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의외로 고교시의 사전적 회계지식은 유의한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Krausz 등(1999)은 MBA과정에서 회계원리 과목의 성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과거의 회계업무 취업경험과 학부에서의 회계과목 수강경험임을 발견하였다. 김혁 등(1993)은 회계분야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군복무여부가 회계원리 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군 복무도 넓은 의미의 사회경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미있는 결과라고 보인다.

5. 인종차이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연구라고 볼 수 없으나 국제화된 사회에서 인종차이와 학업성적과의 상관관계 유무는 흥미있는 연구과제임에 틀림없다. 여러 연구에서 인종차이와 회계의 학업성과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Keef 등(1997)은 뉴질랜드 대학에서 관리회계 성적과 관련성을 보면 인종이나 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Gist 등(1996)도 흑인 학생집단에서 성별차이가 회계원론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 Lange 등(1997)의 연구에서도 개방대학의 회계전공 학생의 학업성적에서 인종의 차이에 의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상에서 학생특성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를 개관하여 보았다. 성별, 전공별, 경제적 및 인지적 환경, 회계와 관련된 사전학습과 사회경험 및 인종차이를 중심으로 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각 분야별 연구결과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지만 나름의 주어진 조건하에서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왜냐하면 실증연구 결과는 주어진 조건이 다르므로 그 결과가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각국의 문화와 교육시스템 및 학생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행될 때 회계교육은 보다 질적인 개선이 될 것이며 학생들의 욕구에도 부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종류의 실증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전공별, 성별,

수강회수별, 사회경험의 유무라는 학생특성과 수강학생의 강의에 대한 적응도 등에 따라 회계성적과의 상관관계 유무를 확인하려 한다. 회계교육에 관한 국내의 실증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도 실증 연구자료의 축적에 조그만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가설과 연구모델의 설정

1.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회계학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특성에 따른 학업성적과의 상관관계를 보고 또한 학생 특성별 차이가 학업성적에 유의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앞선 II장에서 보듯이 외국에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학생 특성별 학업성적에서의 차이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특성별 차이나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연구자간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 확실하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목적에 맞는 학생의 특성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정의될 수 없었고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가 표본조사 당시의 교육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회계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입학전 내신이나 입학성적 또는 수학이나 영어 등 특정 교과목의 성적을 주된 변수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들 변수는 회계학분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서도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표본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입학성적에 있어 최상위자와 최하위자간의 내신성적의 차이가 크지 않기에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입학성적 등을 연구모형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이에 기존의 외국연구에서 학업성취에 관계가 있다고 본 변수들과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회계학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요소를 이용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회계학교육의 학업성과는 구체적으로 “회계학원론”과목의 성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회계학원론 과목은 경영학부 학생은 물론 학년에 관계없이 비경영계의 학생들도 비교적 많이 수강하는 교과목이라는 점에서 학생특성별 차이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전공별로 학생들의 학업성적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경영계열 학부.학과 학생의 성적은 비경영계열 학생보다 높을 것이다.

1-2. 회계전공(또는 전공예정자) 학생의 성적은 경영전공(또는 전공예정자) 학생의 성적보다 높을 것이다.

전공별 차이는 학생들의 학과목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진출에 직접 관련되는 전공과목의 기초라는 점에서 전공자는 보다 열심히 공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경영계열에서도 경영전공과 회계전공 학생 사이에서도 학업성적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위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재수강 이상의 학생의 성적이 처음 수강학생보다 성적이 높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수강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일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 학생의 상당수는 첫 수강시 학문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측면과 신입학생의 들뜬 분위기에 휩싸인 신입생이 수강생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수강 시에는 훨씬 더 열심히 학습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재수강 학생의 일부는 중간수준의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높은 성적을 바라고 수강하는 형태를 보인다. 나아가 재수강자는 첫 수강자보다 부분적으로 학습효과를 축적하고 있고 학업과 인생에 대하여 깊은 고민과 사고의 폭을 넓혔을 것이라는 생각에 연유하여 이러한 가설을 설정한 것이다.

가설 3 : 과목 수강이전에 사회(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학생의 성적이 사회(직장)생활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높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학생은 그간의 사회경험을 통하여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회계업무와 접촉하게 됨으로써 회계에 대한 이해가 그런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좋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대학입시에서 재수자가 반드시 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보다 성적이 높으리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의 학습효과를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가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가설 4 : 여학생의 학업성적은 남학생의 그것보다 높을 것이다.

외국의 연구와 국내 연구에서 공히 남·녀 학생간 학업성적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과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회계학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과거의 회계학원론 과목의 성적에서도 여학생의 성적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사회진출시 회계직종이 여성에게 보다 적응성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가설을 설정한 것이다.

가설 5 : 출신지역에 따라 학생의 회계학 성적에 차이가 날 것이다.

회계의 교육환경은 도시(서울)와 지방(비서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다. 따라서 도시출신과 비도시출신 학생사이에는 학업성적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도시학생이 지방학생보다 성적이 좋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도시는 서울소재 고등학교 출신자로, 그리고 지방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이다.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와 지방소도시를 모두 지방으로 포함시킨 것은 기타 소도시 출신 학생의 표본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가설 6 : 학생 자신의 회계학에 대한 평가와 사회진출에의 기대가 클수록 학업성적이 높을 것이다.

어떤 학문을 접할 때 학문적으로는 물론 졸업후 사회진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경우 그 학생은 보다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반대로 학문적으로나 또는 사회진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비록 수강을 한다 하더라도 학습에 대한 열의가 그만큼 떨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회계학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다. 학문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곧 학업동기를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설 7 : 학생의 학과목 적응도 강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성적이 높을 것이다.

7-1. 학생의 회계학에의 적응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 것이다.

7-2. 학생의 회계학 수업에서 강의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 것이다.

학업성과는 수강 초기에는 해당 교과목에 대한 적응도가 높다면 당연히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으로 연결될 것이다. 또한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적응도에 대한 자기확인이자 자신의 성적에 대한 기대치로 평가할 수 있다.

가설 8 : 학생의 학업성적은 가정경제의 여유정도가 높을수록 성적이 높을 것이다.

학생 자신과 가정의 경제여건은 학업성적에 깊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즉 가정경제가 어려우면 보다 사회진출에 대한 동기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열심히 공부할 것이지만 반대로 가정경제가 어려우면 그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학업보다 경제적 보상을 위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쉽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가정경제와 학업성적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한 것이다. Coleman Report에서는 가정환경이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의 하나임을 밝힌 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부유층 자녀들이 대학 입학시험에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속설을 확인해 보고자 한 것이다.

2. 모델설정과 변수의 정의

앞에서 설정한 여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회계학원론 성적을 종속 변수로 하고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음과 같은 회귀모델을 설정하였다.

$$APS = \alpha + \beta_1 \times MJR + \beta_2 \times SNR + \beta_3 \times SEX + \beta_4 \times SCE + \beta_5 \times SLC + \beta_6 \times AEE + \beta_7 \times DAA + \beta_8 \times DLS + \beta_9 \times FES + e$$

여기에서 APS : 회계학원론 성적(점수)

MJR : 전공구분(경영/비경영계열)

SNR : 수강학기수(처음 수강/ 재수강)

SEX : 성별구분

SCE : 사회경험유무

SLC : 출신지역(서울/비서울)

AEE : 회계평가(학문적 존엄과 사회적 진출 관점)

DAA : 학과목 적응도

DLS : 강의만족도

FES : 가정경제상황

위의 모델에서 종속변수인 회계학원론 성적(점수) APS는 회계학원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및 2회의 수시시험 성적을 각각 이용하였다. 출석과 과제물제출에 대한 평가는 성적에 20%를 반영하므로 시험에 의한 실점수는 중간고사에 20%, 수시시험에 20% 및 기말고사 40%의 합인 80%가 반영되었다. 나머지 20%는 과제물 제출실적과 출결실적으로 평가되었다.

각각의 설명변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 것이다.

- ① 전공구분(MJR)은 경영계열 전공자와 비경영계열 전공자로 구분하였다. 경영계열 전공자는 경영학전공자와 회계학전공자가 포함되며 이들은 각각 전공자와 전공예정자(1학년)가 포함되고 있다. 비경영계열 학생에게는 0을, 경영계열 학생에게는 1을 부여한 dummy변수이다.
- ② 수강학기수(SNR)는 재수강자와 처음 수강하는 학생으로 구분하고 재수강자를 0으로, 처음 수강한 자를 1로 한 dummy 변수이다.
- ③ 성별구분(SEX)에서도 남학생에게 0를, 여학생의 경우 1을 부여한 dummy 변수이다.
- ④ 사회경험유무(SCE)는 현재의 시점에서 직장(조직)생활을 했거나 단기간일지라도 하고 있는 학생을 0으로, 경험이 없는 학생에게 1을 부여한 dummy 변수이다.
- ⑤ 출신지역(SLC)는 고등학교 출신지를 중심으로 서울과 비서울로 구분하여 서울소재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는 0을, 그리고 서울이 아닌 타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는 1을 부여한 dummy 변수이다.
- ⑥ 회계평가(AEE)는 학생들의 회계학에 대한 학문적 존엄성과 기대는 물론 회계학을 학습함으로써 사회진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기대치로 1이 매우 유용하다는 평가이고 5가 매우 낮다는 평가의 5점척도로 측정한 것이다.
- ⑦ 학과목 적응도(DAA)는 학생 스스로 회계학원론에 수업에 대한 적응도에 대한 평가로 1은 매우 높은 경우 1을, 매우 낮은 경우를 5를 부여한 5점척도로 측정한 것이다.
- ⑧ 강의만족도(DLS)도 5점척도로 강의 만족도가 매우 만족스럽다를 1로, 그리고 매우 불만스럽다를 5로 부여한 5점척도로 측정한 것이다.
- ⑨ 가정경제상황(FES)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가정경제의 유족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매우 유족하다는 평가시 1을,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시 5를 부여한 5점척도로 측정한 것이다.

IV. 실증분석

1. 표본의 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은 CUK대학의 2004년 1학기에 회계학원론을 수강하는 경영

212 회계교육에 있어서 학생특성과 학업성적과의 관련성 분석

학부 학생을 포함하여 학년에 관계없이 비경영계열 전공자나 학부학생이 모두 포함되었다. 이들 학생중 수시시험 2회와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 모두 참여하고 학기말에 배부한 본 연구 설문에 응답한 학생을 선정하였다. 이들 학생의 수업은 2개반으로 분반되어 행해졌으며 담당교수는 1인이 담당하여 문제의 난이도나 채점상의 일관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정된 표본의 구성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구성

	총인원	성 별		수강학기		사회경험		출신지역	
		남학생	여학생	재수	처음	유	무	서울	비서울
경영전공	41	27	14	17	24	9	32	20	21
회계전공	34	18	16	9	25	4	30	15	18
경영계열	75	45	30	26	49	13	62	35	39
인문·사회	16	4	12	3	13	3	13	8	8
자연과학	25	11	14	3	22	1	24	15	10
비경영계열	41	15	26	6	35	4	37	23	18
계	116	60	56	32	84	17	99	58	57
missing	1	1		1		1		2	
총 계	117	117		117		117		117	

2.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아래의 <표 2> 및 <표 3>과 같다.

〈표 2〉 변수의 기술통계

변 수 명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비 고
종속 변수	총 점(TS)	117	59.5735	19.64971	100점
	수시시험(TT)	117	9.5130	4.07514	20점
	중간시험(IT)	117	10.7111	5.20692	20점
	기말시험(FT)	117	19.6991	10.88281	40점

독립 변수	회계평가(AEE)	116	2.0431	.85864	1-매우높음, 5-매우낮음
	적응도(DAA)	116	3.3620	1.07900	1-매우높음, 5-매우낮음
	강의만족도(DLS)	115	2.3217	1.00479	1-매우만족, 5-매우불만
	가정경제(FES)	116	2.8879	.70737	1-매우유족, 5-매우부족
	전공여부(MJR)	116			모두 (0.1)의 Dummy 변수임
	재수강여부(SNR)	116			
	성별구분(SEX)	116			
	사회경험유무(SCE)	116			
	출신지역(SLC)	115			

위 <표 2>의 종속변수 총점(100점만점)은 2회에 걸친 수시시험 각각 10%씩(20점만점)과 중간고사 20%(20점만점) 및 기말고사 40%(40점만점)의 시험점수 합계(80점만점)와 출결사항과 과제물 제출실적에 대한 평가 각각 10%씩(20점만점)으로 배분한 실점수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표 3>에서 당연한 결과이지만 수시시험, 중간시험 및 기말고사는 총점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및 수시시험 순으로 총점에 대한 상관관계가 높다. 이는 회계학원론 과목이 단계적으로 이해해 나가는 과목이라는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시시험이 중간시험 이전에 시행하였기 때문에 더욱 상관관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한편 전공여부와 남·녀 성별차이는 4가지 점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재수강여부는 4가지 점수 모두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출신과 지방출신 여부는 기말고사와 총점에 대한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수시시험과 중간시험에서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험유무는 기말시험에서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수시, 중간 및 총점에서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의 회계에 대한 학문적 및 사회진출이라는 관점에서의 회계평가는 총점은 물론 중간과 기말시험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수시시험 점수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회계학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회계 적응도와 강의만족도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회계적응도는 4가지 점수 모두에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수강과목에의 적응도가 높다는 것은 어떤 시험에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강의만족도는 총점과 중간

214 회계교육에 있어서 학생특성과 학업성적과의 관련성 분석

및 기말시험의 점수에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나 수시시험에서는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형태는 회계평가와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회계평가, 적응도 및 강의만족도는 상호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표 3〉 변수의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

	TS	TT	IT	FT	MJR	SNR	SEX	SCE	SLC	AEE	DAA	DLS	FES
TT	.772**	-	-	-	-	-	-	-	-	-	-	-	-
IT	.848**	.635**	-	-	-	-	-	-	-	-	-	-	-
FT	.924**	.570**	.685**	-	-	-	-	-	-	-	-	-	-
MJR	.050	.187*	.108	-	-	-	-	-	-	-	-	-	-
SNR	-.343**	-.321**	-.351**	-.318**	-.214*	-	-	-	-	-	-	-	-
SEX	-.085	-.039	-.077	-.167	-.224*	.249*	-	-	-	-	-	-	-
SCE	-.152	.025	-.090	-.239	-.102	.071	.059	-	-	-	-	-	-
SLC	.202*	.142	.118	.197*	.084	-.044	-.079	-.175	-	-	-	-	-
AEE	-.318**	-.135	-.206*	-.334**	-.131	.144	.113	.135	-.040	-	-	-	-
DAA	-.486**	-.245**	-.395**	-.554**	-.054	.283*	.228*	.357**	-.231*	.407**	-	-	-
DLS	-.353**	-.148	-.279**	-.425**	.022	.219*	.005	.330**	-.075	.255**	.455**	-	-
FES	.138	.212*	.117	.044	.036	-.153	.007	.246**	-.087	-.078	.164	.150	-

*, **는 각각 5% 및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한편 학생들의 가정경제적 상황과 시험성적과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지만 수시시험에서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특기할 점은 시험을 제외하고 총점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회계학에 대한 적응도라는 점이다. 강의만족도와 적응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학업성적에 해당 과목에 대한 적응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3. 모델추정결과

Ⅲ의 2에서 설정한 모델의 추정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에서는 수시시험(TT), 중간고사(IT), 기말고사(FT) 및 총점(TS)에 대한 각각의 회귀계수의 값과 t-통계값과 각각의 모델에 대한 수정결정계수(adj R^2) 및 F값(유의확률)을 나타내

고 있다.

〈표 4〉 모델 추정결과

독립변수	종 속 변 수			
	TT 회귀계수(t-값)	IT 회귀계수(t-값)	FT 회귀계수(t-값)	TS 회귀계수(t-값)
상 수	8.015	14.595	39.488	79.480
MJR	1.315*	.494	-3.382*	-1.014**
SNR	-1.885	-2.617*	-3.709	-8.110
SEX	.816	.523	-1.383	1.930
SCE	1.400	.702	-1572	.914
SLC	.896	.492	2.170	4.905
AEE	6.758E-02	2.212E-02	-1.362	-2.311
DAA	-.860**	-1.520***	-3.548***	-6.254***
DLS	-.284	-.629	-2.138**	-3.052*
FES	1.175**	1.045	1.929	5.237**
수정결정계수	13.4%	25.3%	40.1%	36.0%
F값(유의확률)	3.235(0.002)	4.030(0.000)	8.370(0.000)	6.540(0.000)

주 1) *, **, ***는 각각 10%, 5% 및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2) TT는 수시시험점수, IT는 중간시험점수, FT는 기말시험점수 및 TS는 출결 및 과제물 제출실적 등을 모두 합한 총점으로 기말 최종점수이다.

〈표 4〉에 나타난 실증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4가지 모델중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은 기말시험 모델로 40.1%나 되었다. 다음으로 총점 모델의 설명력은 36%로, 그리고 그 다음이 중간고사 모델로 25.3%의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시시험 모델은 13.4%로 설명력이 가장 낮았다.

독립변수 중에는 회계적응도(DAA)는 수시시험 모델(5% 유의수준), 중간시험 모델(1% 유의수준), 기말시험 모델(1% 유의수준) 및 총점 모델(1% 유의수준)의 4가지 모델 모두에서 매우 높은 유의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전공여부(MJR)는 중간시험 모델을 제외한 3가지 모델에서 유의했는데 총점 모델에서는 5%의 유의수준을 나타냈지만 수시시험 모델과 기말시험 모델에서는 각각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의만족도(DLS)는 기말시험 모델에서 5%수준에서 유의하지만 수시시험 모델과 총점 모델에서는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수강여부(SNR)는 중간고사 모델에서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냈으며 가

정경제상황(FES)은 수시시험과 총점 모델에 대하여 각각 5%수준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성별차이(SEX), 사회경험여부(SCE), 회계평가(AEE) 및 출신지역(SLC)와 같은 다른 변수는 통계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학생특성 즉 회계에 대한 적응도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다. 이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특히 DAA는 수시시험 모델에서만 5%수준에서 유의하지만 중간, 기말 및 총점 모델에서는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위와 같은 실증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III의 1에서 설정한 가설 하나하나를 검증해 보기로 한다.

- ① 가설 1-1 즉, 전공별 차이 즉 경영계열(경영학전공과 회계학전공) 학생이 비경영계열 학생보다 총점, 중간 및 수시시험 점수가 높다. 그러나 반대로 기말시험 점수는 비경영계열이 높아 전체적으로 경영계열 학생의 학업성적이 좋을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된다. 총점에서는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났고 수시시험과 기말시험은 10%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전공자는 기본적으로 당해 전공 과목에 상대적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II의 1에서 보듯이 외국의 연구 특히, Gist 등(1996), Carpenter 등(1993), Brewer 등(2001), Giacomino & Akers(1998), Reidner(1999) 및 Clickman & Henning(2000)의 연구에서도 이와같은 가설은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가설 1-2에서 회계전공의 학생이 경영전공 학생보다 학업성적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여 가설이 기각된다. 그러나 평균점수로 보면 회계전공자가 경영전공자보다 약간 높았다. Snodgrass & Behling(1996)에서는 비록 경영전공과 비경영전공 학생간의 도덕적 추론에 관한 검증에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넓은 의미에서 가설 1-2의 검증결과와 같다고 할 수 있다.
- ② 가설 2에서 재수강 학생의 성적이 총점은 물론 수시, 중간 및 기말시험에서 처음 수강학생보다 점수가 높았지만 중간시험(10%유의수준)을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5%수준에서 검증한다면 가설 2는 양자간 성적차이가 있다는 가설은 기각된다. 외국에서의 연구는 대부분 사전적 교육경험이나 사회적 경험이 학업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즉, Smith(1968), Baldwin 등(1978), Schroder(1986) 및 Canlar(1986)의 연구에서 사전적 학습이 학

업성가에 유의한 의미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는 반대의 입장이다. 김혁 등(1993)의 연구에서 고등학교에서 상업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경우, 초기 과정에서는 도움을 받지만 원리의 응용과 체계적 사고를 강조하는 후기수업으로 갈수록 그 영향력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 ③ 가설 3에서 과목수강 이전에 사회(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학생이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총점은 물론 중간과 기말시험 성적이 5% 유의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설정된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시시험은 오히려 경험이 없는 학생의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지 않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외국의 연구중에서 Koh & Koh(1999)⁵⁾와 Krausz 등(1999)⁶⁾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험이 회계과목의 학업성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회계원리 성적에 영향을 미친 군복무를 하나의 사회적 경험으로 본다면 김혁 등(199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 ④ 가설 4에서 남학생의 성적이 총점, 수시, 중간 및 기말시험에서 모두 높았지만 어느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4는 지지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많은 연구결과와 일치 할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연구결과(김혁 등, 1993)와도 일치한다. 양자간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주요한 연구로는 Canlar & Bristol(1988), Buckless 등(1991), Carpenter 등(1993), Gist 등(1996) Jackling & Anderson(1998), Keef & Rousch(1997)⁷⁾ 및 Stephen(1997)⁸⁾을 들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와 이들 외국의 연구결과는 학업성가에 있어 성별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김혁 등의 국내연구에서도 검증된 바 있다. 그러나 성별차이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회계과목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했다는 연구결과도 많이 발견된다. Mutchler 등(1998), Tyson(1989), Bays 등(1989), Baird 등(1998), Doran 등(1991) 및 Gammie

5) 회계에 대한 학업성가에서 사전적 직장경험이 있는 학생이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하면서도 고등학교에서 배운 사전적 회계지식은 유의한 성과가 없었다고 밝혀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경험과 사전적 교육수강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6) 이 연구는 MBA과정에서 개설된 회계원리 과목의 성적에 회계업무 취업경험과 학부에서의 회계과목 수강경험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7) 관리회계 성적에서 학업능력변수를 통제할 경우 성차이가 성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8) 관리회계 과목에서 학업성적과 성차이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등(2001)⁹⁾의 연구를 들을 수 있다. 국내의 연구로는 박성규(1999)가 10%의 유의수준에서 여학생의 성적이 남학생보다 우수함을 밝히고 있으나 중급회계 과목에서는 지속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남녀 성별차이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결과는 아직도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은 확실하다.

- ⑤ 가설 5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성적이 총점, 수시, 중간 및 기말시험에서 서울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높게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서울출신 학생이 지방학생보다 교육환경이 좋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보다 자주 경제적 활동과 접촉하고 있으므로 회계성적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지방학생이 회계평가나 적응도 및 강의만족도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서울 또는 대도시 학생이 보다 학업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선입견은 옳지 않다는 점은 조심스럽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 ⑥ 가설 6에서 회계에 대한 학문적 평가와 사회진출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진 학생일수록 총점은 물론 기말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적 기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본 연구에서 찾을 수 없었다.
- ⑦ 가설 7-1에서 회계에의 적응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적응도가 낮은 학생보다 총점은 물론 수시, 중간 및 기말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따라서 이 가설은 지지되며 더욱이 총점, 중간 및 기말시험에서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다만 수시 시험의 경우에는 5%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가장 학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학생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⁰⁾ 가설 7-2에서도 강의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낮은 학생보다 성적이 높았지만 총점에서는 10% 유의수준에서, 기말시험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그러나 수시와 중간시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강의만족도가 수시나 중간시험의 점수와 연결되지 못한 것은 강

9) 회계원론과 회계감사의 성적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수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나 학업진도가 높아진 졸업연도에서의 이러한 우수성은 지속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10) 상담심리학에서 논의되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여기에 끌어드린다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학생 자신이 기본적으로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행동을 보이는 것이 학업성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기효능감의 발로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의평가가 기말에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강의만족도는 회계평가와 과목적응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과로 보인다.

- ⑧ 가설 8에서 가정경제 상황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가정경제가 유족한 학생보다 총점은 물론 수시, 중간 및 기말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따라서 가설 8은 기각된다. 총점과 수시시험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지만 중간과 기말시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의 가설검증을 종합해 본다면 종속변수중 총점 모델과 기말시험모델에서 명목변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학생특성은 회계에 대한 적응도이며 이는 수시시험 모델(5% 유의수준)을 제외하면 중간시험, 기말시험 및 총점 모델 모두에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공여부, 재수강여부, 강의만족도 및 가정경제상황은 4가지 모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유의한 변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성별 차이와 사회경험유무 및 출신지역 및 회계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V. 요약 및 결론

국내·외에서 회계교육에 대한 위기감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회계선진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에서의 위기감은 더욱 높다. 우수한 학생이 줄어들고 또 회계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 절대인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학부제 실시 이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의 회계교육이 강의자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또한 회계정보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철저하게 학생의 특성과 기업실무에서 요구하는 교육내용을 담지 못했던 것이다. 수강자 입장과 회계정보 이용자 입장이 경시되었던 것이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두 가지 주된 활동을 하는데 교육의 의무는 살아있는 지식(knowledge alive)을 지켜나가는 것이며 교육은 젊은이들이 책임있는 생활과 인생의 커다란 부름에 답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Pusey, 1964)이어야 한다. 따라서 회계교육은 마땅히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 즉 공자께서 실천하신 철저한 피교육자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살아있는 실천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시장에서 고객만족의 경영이 최선이듯이 회계교육에서도 학생을 고객으로 대접하는 실천적

교육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회계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따라 가장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는 교육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국내·외에서 행해진 연구결과는 연구자의 연구설계와 표본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회계교육에서 학생특성과 학업성적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이미 이뤄진 국내·외의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회계교육에 있어 학생특성이 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표본으로 실증분석의 대상이 된 학생은 CUK 대학의 2004년 1학기에 회계학원론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 117명이었다. 실증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회계적응도, 강의만족도, 회계평가 및 수강학기라는 학생특성이 학업성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여부와 가정의 경제여건도 어느 정도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남·녀 성 차이와 사회경험의 유무 및 회계전공과 경영전공 학생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설정된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 종속변수중 총점 모델과 기말시험모델에서 명목변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또한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학생특성은 회계 학과목에 대한 적응도이며 이는 수시시험 모델(5% 유의수준)을 제외하면 중간시험, 기말시험 및 총점 모델 모두에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공여부, 재수강여부, 강의만족도 및 가정경제상황도 4가지 모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유의한 변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성별차이와 사회경험유무 및 출신지역 및 회계평가는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유사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낳은 것도 있지만 또한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그대로 평가하거나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 한계점 때문이기도 하다. 즉, 본 연구는 특정의 한 대학 학생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선형 회귀분석방법을 취하면서 비율척도 대신 더미변수와 서열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종속변수중 가정경제상황과 같은 주관적 판단자료가 개입됨으로서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선정이 연구자의 주관에 개입되고 독립변수간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는 한계점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학생특성의 상관관계와 학생특성별 학업성과와의 차이유무를 확인함으로써 회계교육에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연구자료의 축적을 통한 학생의 특성과악과 회계교육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하여 후속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도형 · 이효익 · 진춘옥, “회계환경변화에 따른 미국 회계교육 개선노력과 그 시사점”, 『회계저널』 제10권 제1호, 2001. pp.231-256.
- 김 혁 · 송인만, “회계분야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17호, 1993. pp.109-124.
- 박성규, “회계학전공자의 학업성취도와 사회적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가톨릭대학교 『산업경영연구』 제7호, 1999. pp.107-121
- 이대선외, “회계원론 교육의 개선 방안”, 『회계저널』 제 5권, 1996. 6
- 전중열 · 오준환, “학생의 인식차이를 고려한 고객지향적인 회계교육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 10권 제1호, 2001. pp.257-272.
- 진춘옥, “21세기 회계교육의 혁신방향”, 가톨릭대학교 『산업경영연구』 제8호, 2000. pp.53-83.
-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AAA), *spectives on Education : Capabilities for Success in the Accounting Profession*, 1989.
- Albrecht W. Steve and Robert J. Sack, *Accounting Education : Charting the Course through a Perilous Future*, AAA, August 2000.
- Baird, Jane E. Robert C. Zelin II and Dale E. Marxen, “Gender Differences in the Job Attitude of Accountants”, *Mid-American Journal of Business*, Vol. 13, No.2, (Fall, 1998), pp.35-42.
- Baldwin, B. A., D. D. Wasson, K. R. Howe, “The Effect of Homework Requirement on Student Performance in an Introductory Financial Course.” Paper Presented at the Western Region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Meeting, Pasadena, California, Jan., 1988.
- Bayer, P. E. and J. F. Nash, “Gender differences in intermediate accounting and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Paper presented at the 1989 Mid-Atlantic Regional Meeting of the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989.
- Brewer, Peggy D. Vernon L. McGlone, Teresa A. McGlone and Virgil L. Brewer, “The Impact of Nonbusiness majors in a Business Core Coruse”, *Mid-American Journal of Business*, Vol. 16, No.1, (Spring 2001) pp.61-67.
- Buckless, F. A., and M. G. Lipe and S. P. Ravenscroft, “Do gender Effects on

- accounting Course Performance Persist after Contrlling for General Academic Aptitude?,"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Fall 1991) pp.248-261.
- Byrne, Marann, A. Flood and P. Willis,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Approaches and Learning Outcomes : A Study of Irish Accounting Students", *Accounting Education*, Vol. 11, No.1, pp.27-42. March 2002.
- Canlar, M. , "College-Level Exposure to Accounting Study and Its Effect on student Performance in the First MBA-Level Financial Accounting Course,"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1986) pp.13-23.
- Canlar, M. and J. T. Bristol, "Female and Male Undergraduate Accounting Students : An Investigation of Academic Performance in Upper-level College Accounting Courses", *The Woman CPA*, 50 (2), (1988) pp.20-23.
- Carpenter, Vivian L. and S. Friar and M. G. Lipe, "Evidence on the Perfomance of Accounting Students : Race, Gender, and Expectations",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Vol. 8, No. 1, (Spring 1993), pp.1-17.
- Christensen, T. E., T. J. Fogarty and W. A. Wallac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Directional Accuracy of Self-Efficacy and Accounting Course Performance",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Feb. 2002), pp.1-26.
- Clikeman, Paul. M. and Steven L. Henning, "The Socialization of Undergraduate Accounting Students",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Feb. 2000). pp.1-17.
- Lipe. M. G. , "Further Evidence on the Performance of Female Versus Male Accounting Students,"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spring 1989) pp.144-152.
- Dwyer, Peggy D., "Gender Differences in the Scholarly Activities of Accounting Academics : An Empirical Investigation",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Vol. 9, No. 2, (Fall 1994), pp.231-246.
- Gammie, E., B. Power, B. Gammie and F. Duncan, "Gender Differences in Accounting Education : an Undergraduate Exploration", *Accounting education*, Vol. 12(2) (June 2003), pp.177-196.
- Gammie, E., F. Duncan and B. Gammie,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an undergraduate distance learning module in auditing : a teaching note", *Accounting Education :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0,(3),

2001, pp.1-10.

Giacomino, D. E. and M. D. Akers, "An examination of the differences between personal values and value types of female and male accounting and nonaccounting majors".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Vol. 13(2), (Fall, 1998), pp.565-584.

Gist, Willie E., Harold Goedde and Bart H. Ward, "The Influence of Mathematical skills and other factors on minority student performance in Principles of Accounting"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Vol. 11, No.1, (spring 1996), pp.49-60.

Gracia, Louise and Ellis Jenkins, "An Exploration of Student Failure on an Undergraduate Accounting Programme of Study", *Accounting Education*, Vol. 11, No. 1, (March 2002), pp.93-107.

Herring III, Hartwell C. "Conference Address : The Accounting Education change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Accounting Education*, Vol. 12, No. 2, (June 2003), pp.87-95

Jackling, B. and A. A. Anderson, "Study mode, general ability and performance in Accounting", *Accounting Education : An International Journal* 7(1), (1998), pp. 65-73.

Jones, J. P. and K.T. Fields, "The Role of Supplemental Instruction in the First Accounting Course",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Vol. 16(4), (Fall 2001), pp.531-547.

Keef, Stephen P., "Preparation for a First Level University Accounting Course : The Experience in New Zealand", *Journal of Accounting Education*, 6 (1988), pp. 293-307.

Keef, Stephen P. and Melvin L. Roush, "New Zealand Evidence on the Performance of Accounting Students : Race, Gender and Self-Concept,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Fall 1997), pp.315-330.

Koh, M.Y., Hian C. Koh, "The Determinant of Performance in an Accountancy Degree Program", *Accounting Education*, Vol. 8, No. 1, (Mar. 1999), pp. 13-29.

Krausz, Joshua Allen I. Schiff, Jonathan B. Schiff and Joan VanHise, "The Effects of Prior Accounting Work Experience and Education on Performance in the

- Initial Graduate-Level Accounting Course,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Vol. 14, No. 1, (Feb. 1999), pp.1-9.
- Lange, Paul De, Waldmann and Wyatt, K.,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Achivement of Undergraduate Accounting Students Studying through open Learning", *Accounting Education*, Vol. 6, No. 4, (Dec. 1997), pp.295-306.
- Lipe, M. G., "Further Evidence on the Performance of Female Versus Male Accounting Students,"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spring 1989) pp. 144-152.
- Marriott, Pru, "A Longgitudinal Study of Undergraduate Accounting Student's Learning Style Preferences at Two UK Universities", *Accounting Education*, (March 2002), pp.43-62.
- Mitchell, F., "High School Accounting and Student Performance in the First Level University Accounting Course : A UK Study", *Journal of Accounting Education* 6, (1988), pp.279-291.
- Mladenovie, R., "An Investigation into ways of Challenging Introductory Accounting Student's Negative Perceptions of Accounting", *Accounting Education*, (June 2000), pp.135-155.
- Moses, O. D., "Factors Explaining Performance in Graduate-Level Accounting,"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Fall 1987), pp.281-291.
- Mutchler, J. F., J. H. Turner, and D. D. Williams, "The Performance of Female Versus Male Accounting Students",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Spring 1987), pp. 103-111.
- Oswick, C. and Patrick Barber, "Personality Type and Performance in an Introductory Level Accounting Course : A Research Note, *Accounting Education*, Vol. 7, No. 3, (September 1998), pp.249-254.
- Phillsburg, C. M., L. Capozzoli and A. Ciampa, "A Synthesis of Research Studies Regarding The Upward Mobility of Women in Public Accounting", *Accounting Horizons*, (March 1989), pp.63-70.
- Pusey, N. M., "The Age of Scholar", in *An Accounting Thesaurus*, Harper & Row, 2002.
- Ridener, L. R., "Effects of College Major on Ecological Worldviews : A Comparison of Business, Science, and Other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75, pp.15-20.

Short, Daniel, "Students as Customers : finding the Right Niche" *Mid-American Journal of Business*, Vol. 12, No. 1, (Spring 1997), pp.4-5.

Schroeder, W. N., "Previous Accounting Education and College-Level Accounting Exam Performance",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Spring 1986), pp.37-47.

Smith, J. W., *Articulation of High School Bookkeeping and College Elementary Accounting*,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Oklahoma, 1968

Snodgrass, J., & Behling, R.. "Differences in moral reasoning between college and university business majors and non-business majors". *Business and Professional Ethics Journal*, 1996, Vol 15, pp.79-84.

Tyson, T., "Grade Performance in Introductory Accounting Courses : Why Female Students Outperform Males,"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Spring 1989), pp. 153-160.

Williams, L. K., "Student Accounting Performance; Is gender a factor? Paper presented at Southeast Regional Meeting of the AAA, Tampa, FL., April 199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Performance in Accounting Education

Choon Ok Jeon*

〈 Abstract 〉

The accounting education literatures demonstrate that student's characteristics is a critical factor in determining the academic performance in accounting classes. This study investigates empir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udent's characteristics and accounting examination performance and confirms the differences of their exam performance by student's characteristics. This study found that the degree of accounting adaptabilit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mong the qualitative independent variables at 1% significant level. And degree of class satisfaction and status of home economic sufficient factors are important factors in affecting student's examination result. These are more significant than the degree of accounting adaptability. Also home economic status factors, number of retaking lecture and major or non-major student affect slightly examination performance. But gender difference of male and female students, experiences of working place, accounting value (academic authority and expectation of job opportunity) and place of birth factor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results of this study be should interpreted carefully.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and need further research to generalize in the field of accounting education.

〈Key Words〉 accounting education, academic performance, student's characteristics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atholic University